

구성원 소개

정상태 변호사는 인사#노동분야 스페셜리스트입니다. 정 변호사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소 기준의 원칙을 처음으로 주장해 확립시켰으며, 철강업계 불법파견 사건, 보험 판매원 및 강사, AS 기사 등의 근로자성 사건, 증권사의 임금피크제 사건, 부당노동행위사건 등 다양한 노동 관련 사안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노동법 전문가로 독보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. 또한 단체교섭 자문은 물론 유통, 반도체, 화학, 자동차, 식품 등 다양한 업종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자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분야에서도 탁월한 실력을 발휘합니다. △ H기업(식품유통) 회사분할시 고용승계 사건, △ H기업(항만) 정리해고 사건, △ L기업(운송) 전자제품설치기사의 근로자성 사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.

정상태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성, 광장, 김앤장을 거쳐 바른에 합류한 2019년부터 인사노무 그룹장을 맡고 있습니다.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이사,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 및 가입자 격판단심의위원, 중앙노동위원회 및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법률자문위원 등으로 대외활동도 활발하게 병행하고 있습니다.



TEL.
02-3479-2382

MAIL.
sangtae.jung@barunlaw.com

학력

1995	대륜고등학교 졸업
2003	제45회 사법시험 합격
2004	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
2006	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
2013	Washington University, Visiting Scholar

경력

2006	아이앤에스 법률사무소
2006~2008	법무법인 지성
2008~2014	법무법인 광장
2014~2019	김앤장 법률사무소
2014~2022	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징계위원
2020.2.~2022.1.	고용노동부 자문 변호사
2023~2025	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
2024~2026	중앙노동위원회 법률자문위원
2014~현재	노동법이론실무학회 이사
2014~현재	서울지방변호사회 노동법연수원 강사(임금 담당)

최근업무사례

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인정받아, 부당해고를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사례

정년연장이 임금삭감의 가장 중요한 보상이라는 점 인정받아 임금피크제 무효 1심 판결 뒤집고 항소심 전부승소한 사례

[중대재해대응] 준공청소 용역업체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에서, 청소용역을 맡긴 하도급업체 및 임직원을 대리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의 '내사종결'을 이끌어낸 사례

[인사노무] PIP(성과개선계획)가 불공정하게 운영되어 이루어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

[인사노무] 임원 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 내지 신의를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원 채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

[인사노무] 경영성과급 및 퇴직연금 부담금 청구 사건에서 근로자의 청구를 방어한 사례

[인사노무] 회사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손깎지, 손등 입맞춤, 팔짱 끼기 등의 성희롱을 한 상사에 게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

[중대재해대응] 전기설비설치공사를 하던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원청업체를 대리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 내사종결을 이끌어낸 사례

[인사노무] 지방자치단체의 공개채용절차를 통한 기간제근로자 반복 채용에 대해 계속 근로관계를 불인정한 판결

2018~현재	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 위원
2021~현재	근로복지공단 가입자격판단심의회의위원
2024~현재	KBS 특별인사위원회 외부위원
2019~현재	법무법인(유한)바른 구성원 변호사

주요 업무 및 활동

인사/노동 소송

- H기업(식품유통) 회사분할시 고용승계 사건
- Y기업(화학) 호적정정에 따른 정년연장 청구 사건
- Y기업(화학) 불법집회 주동자 해고 사건
- M기업(방송) 성희롱 가해자 해고 사건
- H은행 법인카드 부정사용 해고 사건
- H그룹(자동차) 저성과자 해고 사건
- H그룹(자동차) 라인 무단 정지 및 불법집회 관련 해고 사건
- H그룹(자동차)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
- H그룹(자동차) 사내하청 및 자동차 판매원 불법파견 사건
- D기업(전자서비스) 서비스기사 근로자지위확인 사건
- S그룹(전자) 업무지시 거부 관련 해고 사건
- D기업(제철) 등 다수 기업 통상임금 사건
- H기업(금속) 전보 거부자 해고 사건
- H기업(항만) 정리해고 사건
- H기업(석유화학) 퇴직 임원 성과급 청구 사건
- S보장보험 임금피크제 관련 사건
- K타이어 퇴직금 청구 사건
- H기업(제지) 부당노동행위 사건
- O기업(제조) 부당노동행위 사건
- H기업(식음료) 부당노동행위 사건
- O은행 부당노동행위 사건

인사/노동 자문

- S기업(반도체) 사내도급 및 인사 관련 제규정 점검 프로젝트
- L그룹 서비스센터 도급 적정성 점검 프로젝트
- S그룹 근로시간 단축 관련 프로젝트
- D기업(택배) 택배 도급 점검 프로젝트
- L렌트카 렌트카 업무 도급 점검 프로젝트
- S기업(의료기기) 사내도급 점검 프로젝트
- N기업(인터넷) 근로시간 관련 프로젝트건
- S그룹(백화점) 근로시간 단축 및 도급 점검 프로젝트
- C기업(고속도로) 단체교섭 관련 자문
- H기업(유통) 단체교섭 관련 자문
- T기업(방송) 단체교섭 관련 자문

[인사·노동]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판단받은 사례

[인사·노동] 회사가 노동조합의 계좌로 5천만원을 입금한 것이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

[인사·노동] 회사의 상무가 비조합원에게 노동조합에 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검찰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

[형사] 계열사 주식처분으로 인한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검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

[노동] 전자제품 설치기사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

[인사·노동] 증권사의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판단받은 사례

[산업안전보건] 건설용 리프트 해체 작업 중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,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1심 전부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

[인사·노동] 증권회사에서 영문리포트를 교열, 편집하는 외국인 에디터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,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의 출판물 편집자에 해당한다는 판결 사례

[인사·노동] 1일 2교대 근무제 근로자들이 휴게시간 미부여를 주장하면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용자측을 대리해 승소

[인사·노동]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요원들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

[인사·노동] 회사가 수회에 걸쳐 부여한 단시간의 휴식시간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는 판결

주요업무분야

인사노무

중대재해 대응

ESG

벤처지원